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고유명사 차이에 대한 『개역개정』 음역 고찰 — 음위 전환과 바브/요드 차이를 중심으로 —

김정훈*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마소라 본문의 케티브/케레 전통 가운데 자음 중복(dittography)과 중자 탈락(haplography), 유사 자음(graphic similarity)에서 비롯된 현상들을 분석하였다.¹⁾ 그 결과 케티브가 중세 마소라 필사본을 통해 전해지기는 하지만, 칠십인역 등의 본문 증거를 통해 볼 때, 그 기원은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²⁾ 곧 어떤 것들은 일반적인 생각처럼 필사 오류인 케티브에 대한 수정 읽기도 있지만, 더러는 또 다른 고대 본문 전통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초기 유대주의 시대 본문 형태의 다층성이 입증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케티브/케레 전통은 역본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 이전에 현존하는 역본들은 케티브/케레 전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개신교회에서 주된 성서 본문으로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Dr. Theol.)를 받음. 현재 부산장신대학교 신학과 부교수. ihoze@hotmail.com.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3070).

- 1) 김정훈,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 - 자음 중복과 중자 탈락, 유사 자음 차이의 보기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3 (2018), 184-208. 이에 앞서 필자는 케티브/케레와 관련하여 사무엘하 본문을 보기로 다음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Jong-Hoon Kim,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2.Samuel”, *ZAW* 123 (2011), 27-46.
- 2)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R. Gordis,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A Study of the Kethib-Qere*, 2nd ed.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1)을 보라.

사용하는 『개역개정』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어떤 관점에서 어떤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분석을 통해 『개역개정』의 고유명사 음역 원칙을 재고하여 『개역개정』의 재개정을 위한 발판을 하나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개역개정』(1998/2005)³⁾에서 케티브/케레 전통을 어떻게 수용했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여기서 연구의 범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제한한다. 첫째, 케티브/케레 차이의 현상은 음위 전환(metathesis)과 자음 바브/요드 사이의 차이만 살핀다. 그 까닭은 둘째 제한점과 연관된다. 곧 고유명사의 음역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다. 고유명사의 음역 차이가 케티브/케레에서는 이 두 현상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차이점에 대한 고대 역본과 현대 역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레닌그라드 사본을 바탕으로 하는 히브리어 성경 편집본(BHS)에서 이런 조건을 갖춘 74개의 용례를 분석한다. 이 가운데 음위 전환에서 비롯한 차이는 16개이며, 자음 바브/요드 사이의 차이 문제는 58개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고대 역본을 살펴보아야 한다. 마소라 본문과 더불어 본문비평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평가받는 증거는 무엇보다 쿨란 성경 필사본 단편들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고유명사 관련 케티브/케레의 경우에 본문이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⁴⁾ 그다음으로 우리는 칠십인역을 들 수 있다. 칠십인역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본문의 역사를 배경으로 두고 있어서,⁵⁾ 칠십인역의 실체를 구체화할 수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되도록 현재 사용되는 비평편집본⁶⁾의 본문을 바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역사에서 중요

3)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2005).

4) 여러 본문 증거와 견주어 놓은 쿨란 성경 본문 편집본으로는, E. Ulrich,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Vol. 1: Genesis-Kings; Vol. 2: Isaiah-Twelve Minor Prophets; Vol. 3: Psalms-Chronicles* (Leiden; Boston: Brill, 2013)을 참조하라. 우리가 다루는 76개의 용례 가운데는 유일하게 창 36:5의 יַעֲקֹב[K]/יַעֲקֹב[Q] 용례에서만 4Q1(4QGen-Exod^a)의 단편에서 יַעֲקֹב가 남아 있어 케레를 지지한다.

5) 칠십인역 본문의 역사에 대해서는,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 119-208을 보라.

6) 본 연구에서는 칠십인역 대비평편집본으로 케임브리지 본과 괴팅엔 본을 사용한다. A. Brooke and N. McLean,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1940) (Br.-M.);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3~) (LXX-Gö).

한 구실을 하는 필사본들의 이형(variant)도 더불어 고려한다. 고유명사 음역 전통의 전승 과정을 훑어보기 위해 히에로니무스(Hieronymus)가 라틴어로 옮긴 ‘불가타’(Vulgata, VUL)⁷⁾도 함께 살핀다. 필요하다면 가톨릭교회에서 1979년에 현대 성서학의 성과를 반영하여 개정한 ‘노바 불가타’(Nova Vulgata, NOV)⁸⁾도 함께 살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역개정』의 케티브/케레 음역을 재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음역이 어디서 비롯했는지 그 번역 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다.⁹⁾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번역의 역사를 구체적인 용례 중심으로 분석한다. 무엇보다 『개역개정』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舊譯)이라고 일컫는 『성경전서』(1911)¹⁰⁾와 그에 이은 『구약 개역』(1938),¹¹⁾ 『개역개정』의 전신인 『개역한글』(1961),¹²⁾ 그리고 『새번역』(2001)¹³⁾과 가톨릭교회의 『성경』(2005)¹⁴⁾도 함께 견준다.

외국어 역본으로는 무엇보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 초기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기는¹⁵⁾ ASV(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와 이 역본과 번역 경향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진 ERV(English Revised Version, 1881/1885)를 비교 본문으로 삼는다. 그리고 참고 역본으로는 영어 역본인

7) 불가타의 편집본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R. Gryson, ed., *Biblia Sacra Vulgata*, 4.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8) *Nova Vulgata: Bibliorum Sacrorum Editio (Vulgate Latin Bible) Sacros, Oecum, Concilii Vaticani il Ratione Habita Iussu Pauli PP. vi Recognita Auctoritate Ioannis Pauli PP. il Promulgata* (Vatican City: Libreria Editiva Vaticana, 1979).

9) 우리말 성경 번역의 역사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스도교와겨레문화연구원,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김중은,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1-55;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조직·성장과 수난』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이달, “한글성서 번역본의 특징 비교: 대한성서공회 발행 공인 번역본을 중심으로”, 『기독교문화연구』 13 (2008), 173-195;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한국기독교출판사, 1987); 이상규, “한글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 -한국성경번역사 개관”, 『고신신학』 13 (2011), 229-258; 김정훈, 『우리말 역본과 함께 하는 호세아 주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15-31.

10) 대영성서공회 편,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明治44年]) = 영인본: 韓國聖經大全集 10, 11, 19, 20 (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 2002).

11) 조선성서공회 편, 『구약 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1938 [昭和 13年]) = 영인본: 韓國聖經大全集 40, 41 (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 2002).

12)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13) 대한성서공회 편,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14) 천주교중앙협의회 편, 『성경』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15) 이에 대해 대한성서공회의 누리집(<https://www.bskorea.or.kr/>)에서 제공하는 “한글성경 계보도”를 참조하라. 계속해서 언급되는 역본들은 Bible Works ver. 10.0에서 제공하는 본문을 사용한다.

KJV(King James Version, 1611)와 독일어 역본으로는 루터 역(Lutherbibel, LUT, 1984)을 함께 살핀다. 더 많은 역본을 살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정도의 역본들을 분석 범위에 넣기로 한다.

3. 케티브/케레 전통의 고유명사 용례 분석

3.1. 『개역개정』이 케레 전통을 따른 경우

이 범주에 드는 용례는 모두 57개로 전체 74개 용례의 대략 77%를 차지한다. 이런 경우는 무엇보다 칠십인역과 견주어 과연 케티브가 필사 오류인지 아니면 고대 본문의 이형을 보여주는지를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

3.1.1. 모든 본문 증거와 현대 역본이 케레를 따르는 경우

이 범주에 드는 용례는 22개다. 이런 경우는 케티브의 본문이 필사 오류이거나 본문 역사 초기에 사라져 버린 본문 전통을 반영할 것이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이거나 일관된 본문 증거들 때문에 필사 오류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보기는 다음과 같이 10번이다. 다른 본문 증거나 현대 역본은 아래 표에서는 생략한다.

	케티브	케레	칠십인역	『개역개정』
신 29:23[22]	וצביים	וצבויים	καὶ Σεβοιμ	스보임
삼상 25:18	אבוגיל	אַבִּיגַיִל	Αβιγαια	아비가일
왕상 16:34	ובשגיב	ובשגִּיב	καὶ τῷ Σεγουβ	스굽
렘 48:7	כמוש	כְּמוֹשׁ	Χαμωσ [31:7]	그모스
렘 49:36	עולם	עֵילָם	Αιλαμ [25:16]	엘람
스 10:2	עולם	עֵילָם	Ηλαμ	엘람
대상 20:5	יעור	יַעִיר	Ιαῖρ	야일 ¹⁶⁾
수 20:8	גלון	גִּלְוֹן	Γαυλων ¹⁷⁾	골란
수 21:27	גלון	גִּלְוֹן	Γαυλων	골란
대상 3:24	הדיוהו	הַדִּיּוֹהוּ	Οδοια	호다위야 ¹⁸⁾

16) 구약성경에서 케티브의 형태로는 한 번도 고유명사로 쓰이지 않는다. 참고로, 불가타(VUL)는 이 낱말을 ‘saltus’(수풀, 삼림)로 옮기는데, 아마도 히에로니무스(Hieronymus)에게 전해진 본문 전통이 마소라나 칠십인역과 달리 ‘요드’나 ‘바브’가 빠진 ‘יער’(야아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를 개정한 노바 불가타(NOV, 1979)에서는 다시 ‘Iair’로 수정했다.

17) 비록 칠십인역의 모음 읽기는 다르지만, 1음절의 복모음 ‘-au-’의 ‘u’는 분명히 히브리어 자음 ‘바브’를 전제하는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케티브의 형태로는 여호수아의 이 두 곳 말고는 구약성경에서 한 번도 쓰이지 않는다.

18) 이 이름에는 신명 요소인 ‘야후’가 들어 있어서 케티브는 필사 오류로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12개 용례들¹⁹⁾은 자음 ‘요드’(י)와 ‘바브’(ב)가 더불어 쓰이던 시대에 갈라진 이형(variant)으로 여길 수 있다.²⁰⁾ 이런 경우는 적어도 칠십인역 번역이 이루어지던 시대에는 케레 전통이 수용되었으며, 이는 마소라 본문의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졌다고 여길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다루는 용례 가운데 유일하게 창세기 36:5에서 남아 있는 쿨란 본문 증거(4QGen-Exod^a)가 케레를 뒷받침한다는 점은 개별적인 경우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케레 전통이 쿨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케레가 본문비평에서 우선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에 『개역개정』을 비롯한 역본들이 케레의 고유명사 음역 전통을 따른 것은 문제가 없다.

3.1.2. 칠십인역과 『개역개정』 이외의 일부가 다른 경우

전체 용례 가운데 5개의 경우가 이 범주에 든다. 『개역개정』은 칠십인역과 같게 케레 전통을 따르는데, 라틴어 역본이나 그 밖의 본문 증거가 케티브를 따르거나, 또 다른 번역을 보여 주는 경우다.

첫째, 사무엘하 23:8에서 다윗의 용사 목록의 첫 구절에 등장하는 ‘아디노’의 출신지가 『개역개정』에서는 ‘에센’(LXX ὁ Ασωναῖος)이라고 옮겨졌다. 이는 케티브(העצנו)와 달리 케레(העצני, 하에츠니)를 따르는 전통으로, 우리말 역본에서는 『구역』에서부터 이어왔다. 이는 아마도 KJV와 ERV, ASV도 ‘Eznite’로 옮긴 것과 연관되는 듯하다. 그런데 『새번역』과 『성경』은 여기서 이 인물이 언급되지 않는다. 특히 『성경』은 후반절을 전반절 앞부분에서 언급한 ‘요셉 밧세벳’을 주어로 해서 ‘창을 휘둘러’로 옮기는데, 이는 LUT(der schwang seinen Spieß)에서도 마찬가지다. 본문을 이렇게 이해한 것은 역대상 11:11의 본문(עֹרֵר אֶת־חַנְיָחוּ)을 받아들인 결과다.²¹⁾ 하지만 역

19) 창 36:5, 14 יַעֲשׂוּ[K]/יַעֲשׂוּ[Q]/Ἰεους/여우스; 스 2:50 מְעֻנִים/מְעֻנִים/Μαωνιμ/므우님; 대상 4:20 וְחִילּוֹן/וְחִילּוֹן/καὶ Θιλων/틸론; 6:35[20] צִירָה/צִירָה/Σουφ/속; 7:1 יְשׁוּבָה/יְשׁוּבָה/Ἰασουβ/야속; 7:10 יַעֲשׂוּ/יַעֲשׂוּ/Ἰαους/여우스; 9:35 יַעֲשׂוּ/יַעֲשׂוּ/Ἰαουβ/여이엘(또한, 대상 11:44; 대하 26:11; 비교. 대상 9:6 יַעֲשׂוּ/Ἰαουβ/여우엘); 대상 24:24 שְׁמִירָה/שְׁמִירָה/Σαμηρ/사밀; 대하 17:8 וְשִׁמְרֵי מוֹתָם/וְשִׁמְרֵי מוֹתָם/καὶ Σεμραμωθ/스미라못.

20) 이런 견해로는, Y. Ratzaby, “Remarks concerning the Distinction between Waw and Yodh in the Habakkuk Scroll”, *JQR* 41 (1950), 155-157을 보라. 초기 유대주의 시대에 있었던 이런 현상은 필자도 다른 연구에서 종종 확인한 바 있다. 참조. Jong-Hoon Kim,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kukzitate im Peshet Habakuk: Rezeptionsä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 Jong-Hoon Kim,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2.Samuel”, 27-46.

21) 이런 견해로는, P. K. McCarter, *II Samuel*, AB 9 (New York: Doubleday, 1984), 489-490을 보라. 한편, 이 읽기가 마소라 본문의 자음 형태와 너무 동떨어지기 때문에, מְעֻנִי(그의 도끼)나 חֲצִינוּ(그의 전투용 도끼)를 제안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H. J. Stoebe, *Das zweite Buch Samuelis*, KAT VIII/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497을 보라.

대기의 본문을 바탕으로 자음의 차이가 큰 사무엘서의 본문을 옮길 필요는 없어 보인다. 서로 다른 본문 전통을 반영한다고 보아, 이 경우에는 두 본문을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이다. 다만, 사무엘서의 문맥에서 필사 오류로 보이는 케티브보다는 케레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무엘하 23:35에서는 다윗의 30 용사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에서 케레 전통(הֶזְרַי, 헤즈라이)에 따라 ‘헤스래’로 옮긴 인물이 등장한다. 이는 칠십인역(‘Ασραϊ’)과 불가타(‘Hesrai’)는 물론, KJV(‘Hezrai’)에서도 선택한 읽기다. 그런데 여기서 케티브는 자음 ‘요드’ 대신에 ‘바브’를 써서 ‘הַזְרַי’의 본문을 전한다. 이 전통은 LUT와 ERV와 ASV에서 받아들여졌으며(Hezro), 우리말 역본 가운데는 『성경』이 따른다(헤츠로). 『성경』은 아마도 ‘Hesro’로 개정된 노바 불가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케티브의 전통은 역대상 11:37의 평행 본문(הֶזְרַי/헤스로[『개역개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칠십인역은 역대상에서도 자음 ‘요드’의 전통을 반영한다(Ηοερε B, Ηοεραϊ S, Ασραϊ A, εορι L). 그러므로 이 두 전통 가운데 어느 것이 원래의 것인지 판가름하기는 어렵다. 다만 역본에서 케레와 칠십인역의 전통을 존중한다면 ‘헤스래’로, 케티브와 역대기 본문의 전통을 존중한다면 ‘헤스로’로 사무엘서와 역대기 평행 본문을 통일해야 함은 분명하다.

셋째, 에스라 8:17에서 에스라가 유다로 돌아올 때 함께 온 레위 사람들을 파견하는데, 그 대상 가운데 『개역개정』의 ‘느디님 사람’이 문제가 된다. 케레에 따르는 ‘느디님’(הַנְּתִינִים; LXX τοὺς ναθινίμ)은 구약성경에서 특히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섬기는 이들의 계층으로 자주 쓰이기 때문에,²²⁾ 케티브 전통(הַנְּתִינִים)은 분명히 필사 오류로 보인다. 그런데 ‘Nathinneos’로 음역하는 불가타와 달리 노바 불가타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으며, 이런 현상은 LUT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성경』은 ‘성전 막일꾼’으로 의역했다. 본문에서 이 낱말이 빠진 것은 아마도 바로 앞에 있는 ‘그의 형제’와 이른바 ‘성전 막일꾼’인 ‘느디님 사람’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듯하다.²³⁾

넷째, 역대상 7:31에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자손 명단 가운데 아셀의 자손에서 『개역개정』에서 ‘비르사잇’으로 음역한 인물이 문제가 된다. 여기서 칠십인역(Βερζαϊθ)을 비롯한 대부분 본문 증거가 케레(בִּרְזַיִת)를 지지

22) 참조. J. P. Healey, “Nethinim”, *ABD* 4 (1992), 1085-1086. 이 낱말은 대상 9:2의 한 용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집중되어 있다(스 2:43, 58, 70; 7:7; 8:17, 20[×2]; 3:26, 31; 7:46, 60, 73[72]; 10:28[29]; 11:3, 21[×2]).

23) 참조.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BC 16 (Waco: Word Books, 1985), 113.

한다(‘Birzaith’ VUL, ERV, ASV; ‘Birsajit’ LUT). 다만 KJV가 이 낱말을 ‘Birzavith’으로 음역한 것은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여기서 쓰인 ‘v’가 케티브(בריות)를 음역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역대상 23:9에서는 레위인 가운데 게르손 자손으로 시므이의 아들 한 사람으로 『개역개정』에서 ‘슬로밋’으로 음역한 인물이 문제가 된다. 『개역개정』의 음역은 칠십인역(Σαλωμιθ)이나 불가타(‘Samomith’)와 마찬가지로 케레(שלומית)를 따른다(참조. ‘Shelomith’ KJV; ‘Schelomit’ LUT). 그런데 흥미롭게도 『구역』(1911)은 ‘슬노뫓’으로 음역하여 케티브(שלמות)를 따르는데, 이는 아마도 ‘Shelomoth’으로 음역한 ERV, ASV의 영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케티브를 따른 것은 같은 현상을 보이는 26:25, 26의 인물과 통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는 25절에서는 23:9에서와 마찬가지로 케티브/케레 현상이 나타나지만, 26절에서는 아무런 이형 없이 ‘슬로뫓’(שלמות/Σαλωμιθ)이 쓰이므로, 25절이 필사 오류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26장의 구절과 이 구절을 맞출 필요는 없겠다.

3.1.3.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따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21번 찾아볼 수 있다.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따르는데, 『개역개정』이 케레를 따랐다면 과연 그 선택이 본문비평 관점에서 타당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범주의 용례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칠십인역을 제외한 모든 역본이 케레를 선택한 경우이며(13개), 둘째로는 하나나 그 이상의 본문이 칠십인역과 같이 케티브를 따르는 경우다(8개).

(1) 칠십인역을 뺀 나머지 역본이 케레를 따르는 경우

첫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할 때, 처음 도피한 곳의 지명으로 『개역개정』이 ‘나웃’으로 음역한 여섯 용례가 이 범주에 든다. 사무엘상 19장에서 이 지명은 5번 등장한다(19:18, 19, 22, 23[×2]). 모든 경우에서 케티브는 ‘נויח’으로 쓴다. 칠십인역은 여기서 ‘Ναυαθ’로 케티브를 전제하는 음역을 전한다.²⁴⁾ 반면에 케레는 모두 자음 ‘바브’와 ‘요드’의 자리가 바뀐 ‘נויח’ (나웃)으로 쓰며, 불가타(‘Nahioth’)에서 시작하여 모든 역본들은 이 전통을 따른다(영어 ‘Naioth’; 독일어 ‘Najot’). 한편, 이 낱말은 이어지는 20장 1절에서 한 번 더 쓰이는데, 이 경우 케티브는 가운데 두 자음을 모두 ‘바브’

24) 여기서 바티칸 사본(Cod. B)을 따르는 몇몇 필사본 전통은 ‘ΑΥΑΘ’으로 쓰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는 아마도 대문자 사본에서 앞선 전치사 ‘EN’의 마지막 자음과 겹치면서 첫 자음 ‘N’이 중자 탈락(haplography)한 듯하다.

로 쓴다(נווה). 반면에 케레는 19장과 같으며, 나머지 모든 역본도 그렇다. 흥미로운 점은 칠십인역은 결국, 이 경우 케티브는 비슷한 꼴의 자음 ‘바브’와 ‘요드’를 잘못 보아 생긴 필사 오류로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 사무엘하 24:16에서 다윗에게 성전 터를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개역개정』은 ‘아라우나’로 음역하는데, 이는 케레(הַאֲרֻנָּה)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반면에, 칠십인역은 ‘Opva’로 음역하여 케티브(הַאֲרֻנָּה)를 전제한다. 우리의 분석에서는 자음 ‘요드’와 ‘바브’ 차이에 제한하여서 들지 않았지만, 이 이름을 둘러싼 케티브와 케레는 18절에서 조금 다른 형태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근본적인 현상은 같다(הַאֲרֻנָּה[K]/הַאֲרֻנָּה[Q]/Opva[LXX]).²⁵⁾ 히브리어에서는 케티브의 전통이 이 두 구절에서만 등장한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이 이후에 계속해서 케레가 아니라 케티브의 전통에 따라 ‘Opva’로 음역한다(삼하 24:20[×2], 21, 22, 23[×2], 24). 그러므로 이 경우 케티브는 단순한 필사 오류가 아니라, 케레와 구분되는 또 다른 전통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케티브와 케레 사이의 우열은 본문비평 관점에서 판가름하기 쉽지 않다. 이 말은 굳이 케티브를 따라야 할 까닭도 없음을 뜻한다. 다만 케티브가 마소라 학자들에게서 비롯한 필사 오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케레와 더불어 유통되던 본문 전통을 반영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셋째, 열왕기상 14:25에서 남 유다 르호보암 임금 시절에 유다를 침공했던 파라오의 이름이 문제다. 『개역개정』은 케레(פַּרְעֹה) 전통에 따라 ‘시삭’으로 음역했으며, 이것이 대부분 역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역 전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이름이 다른 데서도 등장하는데, 모두 케레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칠십인역은 모든 용례(왕상 11:40; 대하 12:2, 5[×2], 7, 9)에서 케티브(פַּרְעֹה)를 전제하는 음역 ‘Σουσακιμ’을 전한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쓰인 ‘-μ’은 이어지는 ‘임금’(מֶלֶךְ, 멜렉)의 첫 자음의 중복 오사(dittography)이거나 ‘여호야김’(יְהוֹיָכִים/Ιωακίμ) 등의 이름을 유비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곤 한다.²⁶⁾ 문제는 그 앞 두 음절의 모습이다. 케레 전통이 ‘이/아’로 구성되지만, 케티브와 칠십인역 전통은 ‘우/아’로 구성된다. 이집트 상형문자에서 비롯한 이 이름(Ššnk)은 사실상 모음을 재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아카드어 췌기 문자 전통에서 ‘š/su-š/si-in-qu’가 발견되는 것은 케티브와 칠십인역의 음역이 고대 사회에서 널리 쓰이던 전통임을 추측

25) 이 문제는 필자가 선행 연구 가운데 하나인, Jong-Hoon Kim,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2.Samuel”, 40에서도 다룬 바 있다.

26) 이에 대해, M. Karrer and W. Kraus, 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I. Genesis bis Makkabä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921을 보라.

하게 해 준다.²⁷⁾

넷째, 열왕기하 24:18과 예레미야 52:1에서 유다의 마지막 임금 시드기야의 어머니 이름이 언급되는데, 케티브는 ‘לְחַמְטָל’(하미탈)로 전하는 반면에 케레는 ‘לְחַמְטָלָה’(하무탈)로 전한다. 『개역개정』은 케레의 전통에 따라 ‘하무탈’로 음역한다. 이는 열왕기하 23:31에서 본문의 이형(variant) 없이 ‘לְחַמְטָל’인 점과 맞닿아 있다. 그런데 칠십인역은 이 세 경우 모두 케티브의 전통에 따라 ‘Αμιτα[α]λ’로 음역한다. 이는 또 다른 본문 전통이거나 후대의 수정일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

다섯째, 예레미야 48(LXX 31)장에는 모압에 관한 신탁이 전해지는데, 5절과 21절에서 언급되는 두 모압 지명이 케티브와 케레 전통에서 차이가 난다. 먼저 5절에서는 『개역개정』이 케레(הַלְלוּחִית)에 따라 ‘루히트’²⁸⁾으로 음역했다. 그런데 여기서 칠십인역은 ‘Αλαωθ’로 정관사까지를 포함해서 케티브의 전통(הַלְלוּחִית)을 따라 음역했다. 칠십인역은 여기서 또 다른 본문 전통을 반영할 것이며, 번역자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꼴을 이해하지 못하고, 전체 형태를 고유명사로 본 듯하다.²⁹⁾ 한편, 21절에서는 『개역개정』이 케레의 전통(מִוּפְעָת)에 따라 ‘메바앗’으로 음역한다. 그런데 칠십인역은 여기서도 케티브의 전통(מִוּפְעָת)에 따라 ‘Μωφαθ’로 음역한다. 이 경우도 칠십인역은 마소라 본문과 구별되는 본문 전통을 반영할 것이다. 이 두 용례에서 어느 전통이 더 오래되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느 전통에서든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역대상 12:1-6[7]³⁰⁾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5[6]절에서 『개역개정』이 케레 전통(הַחֲרִיפִי)에 따라 ‘하림’으로 음역한 스바댜의 출신지가 문제 된다. 여기서 케티브는 자음 ‘바브’ 대신 ‘요드’를 써서 ‘הַחֲרִיפִי’로 전하는데, 칠십인역의 음역 ‘ὁ Χαραίφι’가 이를 전제한다. 따라서 케티브의 전통은 적어도 칠십인역 시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지만 어느 전통이 원래의 것인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27) 참조. M. Cogan, *I Kings*, AYB 10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342; M. Noth, *Könige 1,1-16*, BKAT IX/1, 3.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324.

28) 『구역』(1911)은 여기서 ‘루히터’로 음역했는데, 마지막 음절은 영어 역본의 ‘Luhith’에서 마지막 ‘-th’를 유성음으로 발음한 데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29) 참조. הַלְלוּחִית/τῆς Λουιθ/루히 사 15:5.

30) 『개역개정』은 대상 12장에서 히브리어 성경의 4-5절을 한 절로 보아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차이가 난다.

(2) 칠십인역 이외 일부 역본이 케티브를 따르는 경우

첫째, 예레미야 40(LXX 47):8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바벨론의 총독 자리에 오른 그다라(‘그달리야’ 왕하 25장)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레의 전통(עִפְי, 에파이)에 따라 ‘에배’로 옮긴 이름이 문제다. 이 부분은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5:23에 없어서 비교할 수 없다. 여기서 케티브는 첫 자음을 ‘바브’로 써서 ‘עופי’(오/우파이)를 전한다. 이 전통은 칠십인역(Ωφε)과 불가타(‘Offi’ VUL; ‘Ophi’ NOV)의 전통에서 받아들여졌다.

둘째, 시편 39(LXX 38)편과 77(LXX 76)편의 표제[1절]에서 쓰인 ‘여두둔’은 『개역개정』이 이형이 없는 다른 용례³¹⁾를 따라 케레 전통(לִידִיתוֹן)으로 음역했다. 그런데 케티브는 여기서 가운데 음절의 모음 문자를 ‘바브’ 대신 ‘요드’로 쓴다(לִידִיתוֹן). 히브리어 본문의 용례만 보자면, 케티브는 필사 오류로 보인다. 그러나 칠십인역은 이 두 용례에서 일관되게 ‘Ιδιθουν’으로 케티브를 따르며, 역대기의 용례에서는 한 번의 예외(대하 5:12)³²⁾를 빼면 모두 ‘Ιδιθων’으로 음역하는데, 이 또한 케티브를 반영한다. 이런 전통은 불가타(Idithun)까지 이어진다. 한편, 느헤미야 11:17에서도 같은 케티브와 케레 현상을 찾아볼 수 있지만, 칠십인역에서 이 부분이 번역되지 않고 빠져 있어서 판단하기 어렵다. 어쨌거나 이 경우 해당 본문의 케티브는 단순한 필사 오류라기보다는 칠십인역에 전해진 또 다른 본문 전통을 반영한다.

셋째, 에스라 2:50에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레 전통(נְפִישִׁים)에 따라 ‘느부심’으로 음역한 고유명사가 문제가 된다. 이 전통은 불가타(‘Nephusim’)를 거쳐서 KJV(‘Nephusim’)나 LUT(‘Nefusiter’)로 이어진다. 그런데 『구역』에서는 ‘느비심’으로 케티브 전통(נְפִישִׁים)을 반영한 것이 흥미롭다. 이것은 사실상 칠십인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Ναφισων), 『구역』의 경우는 아마도 칠십인역의 전통에 선 ERV, ASV(‘Nephisim’)의 영향을 직접 받았을 것이다. 이 평행 구절인 느헤미야 7:52는 비슷한 이름에서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개역개정』이 케레(נְפִישִׁים, 느피쉬심)의 전통에 따라 ‘느비스심’으로 음역한다(‘Nephishesim’, KJV). 에스라의 본문을 느헤미야의 두 치음(שש)이 하나(ס)로 단축된 형태로 보아야 할지는 논란거리이기는 하다.³³⁾ 게다가 여기서는 에스라의 케티브 모음이 케레 모음으로 받아들여졌다. 반면에 케티브(נְפִישִׁים)는 에스라의 케

31) 시 62:1(LXX 61:1); 대상 9:16; 16:38, 41, 42(×2); 25:1, 3(×3), 6; 대하 5:12; 29:14; 35:15.
32) 바티칸 사본(Cod. B)과 그 영향을 받은 일부 필사본들은 ‘Ιδιθουμ’으로 음역하지만, 나머지 필사본들은 모두 ‘Ιδιθουν’으로 음역한다.
33) 이에 대해, 참조. K.-D. Schunk, *Nehemia*, BKAT XX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199.

레 모음 구성을 전한다. 칠십인역은 여기서도 케티브에 따라 ‘Νεφωσασιμ’으로 음역하는데, 에스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RV, ASV(‘Nefushesim’)와 『구역』(‘느부스심’)이 이를 따른다. 흥미로운 점은 불가타의 전통이다. 앞서 케레를 받아들였던 불가타가 이번에는 케티브를 받아들인다(‘Nephusim’). LUT(‘Nefusiter’)와 『성경』(‘느푸심’)이 바로 이 전통을 따른다. 결국, 여기서만 쓰인 두 인명 전통은 공존의 시기를 거쳐서 혼란스러운 상태로 남게 되었다. 『개역개정』의 전통처럼 일방적으로 한쪽 전통에 서서 서로 다른 음역을 두어야 할지, 불가타, LUT, 『성경』처럼 한 음역으로 통일해야 할지는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다. 본문비평의 관점에서는 전자가 더 개연성이 있지만, 가독성의 면에서는 후자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느헤미야 12:16에서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제사장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레 전통(אִיְדוּ)에 따라 ‘잇도’로 음역한 인명이 문제가 된다. 케티브는 자음 ‘바브’ 대신에 ‘요드’를 써서 ‘אִיְדוּ’를 전한다. 이 전통이 칠십인역(τῶ Ἀδδαί)과 불가타(‘Addaiae’)에 전해졌는데, 그 이후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케티브는 또 다른 전통으로 칠십인역이 ‘Ἀδδω’로, 불가타가 ‘Addo’로 음역한 이름(스 5:1; 6:14; 스 1:7)과 구분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케레는 느헤미야 12:4에 나오는 이름의 뒷받침을 받는 것³⁴⁾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읽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다섯째, 솔로몬 시대에 등장하는 ‘히람’ 또는 ‘후람’의 문제다. 이 이름은 두 인물을 가리킨다. 먼저는 두로 임금을 가리키며, 그다음으로는 두로 출신의 놋 장인을 일컫는다. 그렇지만 이 이름이 누구를 가리키든 사무엘서와 열왕기에서는 ‘히람’(חִירָם)을, 역대기에서는 ‘후람’(חִרָם)을 주로 쓴다.³⁵⁾ 그런데 역대상 14:1과 역대하 4:11; 9:10에서는 케티브가 ‘히람’을, 케레가 ‘후람’을 전해 주어 갈린다. 이 이름에 대해 칠십인역은 일관되게 모든 용례에서 ‘Χιραμ’으로 음역한다. 따라서 역대기에서는 대부분 히브리어와 달리 음역하며, 우리가 다루는 세 경우에서 케티브를 일관되게 따른다. 이는 불가타의 전통(‘Hiram’)도 마찬가지다. 현대 역본 가운데는 LUT(‘Hiram’)가 이를 따른다. 그런데 우리말 역본은 『구역』, 『개역』, 『새번역』, 『개역개정』 할 것 없이 이 세 경우에 일관되지 않으며, 이는 KJV와 ERV, ASV도 마찬가지다. 이들 역본은 전반적으로는 히브리어의 쓰임새를 따르는데, 케티브와 케레가 나뉘는 이 세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보듯 제각각이다.

34) 이런 견해는 참조. Ibid, 339.

35) 히람: 삼하 5:11; 왕상 5:1[15](×2), 2[16], 7[21], 8[22], 11[25], 12[26]; 7:13, 40, 45; 9:11, 12, 14, 27; 10:11, 22; 후람: 대하 2:3[2], 11[10], 12[11]; 4:16, 8:2, 18; 9:21.

	대상 14:1	대하 4:11	대하 9:10
『구역』	히람[K]	후람[Q]	후람[Q]
『개역』	히람 [K]	후람[Q]	후람[Q]
『개역개정』	히람[K]	후람[Q]	후람[Q]
『새번역』	히람[K]	후람[Q]	히람[K]
『성경』	히람[K]	후람[Q]	히람[K]
KJV	Hiram[K]	Huram[Q]	Huram[Q]
ERV	Hiram[K]	Huram[Q]	Huram[Q]
ASV	Hiram[K]	Huram[Q]	Huram[Q]

위의 도표를 보면, 『개역개정』의 전통은 영어 역본의 영향을 받았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새번역』과 『성경』은 이해하기 더 어렵다. 어쨌거나 위의 표에서 언급한 현대 역본들의 음역은 분명히 재고해야 한다. 히브리어 성경에 따라 일관되게 이 경우에도 케레에 따르거나, 칠십인역이나 불가타, LUT처럼 동일 인물이라는 점에서 한 음역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3.1.4. 칠십인역의 전통이 케티브/케레와 다른 경우

이 범주는 칠십인역이 케티브와 케레와는 또 다른 번역어를 썼거나 번역어가 빠진 경우인데, 전자의 용례가 8번, 후자의 용례가 1번 등장한다. 칠십인역에서 번역어가 빠진 경우는 앞서 언급한 느헤미야 11:17의 ‘여두둔’ 용례다. 이제 나머지 8 용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경우들은 사실상 『개역개정』 음역을 재고할 필요는 없으며, 케티브/케레 전통과 관련하여 칠십인역 음역의 본문 비평적 특징 고려 차원에서 분석한다.

첫째, 사무엘하 3:15에서 다윗과 헤어진 뒤 미갈이 재혼하였던 남편 발디엘의 아버지 이름이 케레에서는 ‘ מִיָּל ’(라이스)로 언급되며, 이 전통이 『개역개정』을 비롯한 모든 역본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낱말은 원래 ‘사자’를 뜻한다(사 30:6; 욥 4:11; 잠 30:30). 반면에 케티브(מִיָּל)는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갈의 재혼 사건을 처음 언급하는 사무엘상 25:44에서 칠십인역(‘ Λαις ’)을 포함하여 아무런 이형이 없이 케레와 같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케티브는 필사 오류로 보인다. 그런데 사무엘하 3:15의 칠십인역은 이 이름을 ‘ Σελλης ’(셀레스)로 음역하여 케티브/케레 전통과는 전혀 다른 본문을 보여준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형에 대해 어떤 이들은 사무엘하 21:8에서 언급되는 ‘바르실래’(בַּרְצִילַי /Βερζελλαι)와 연관 짓지만,³⁶⁾ 필자는 사무엘상 본

36) 이런 견해로는, H. J. Stoebe, *Das zweite Buch Smuelis*, 125를 보라.

문에서 라이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מִלִּינִי’(갈림)³⁷⁾과 혼동을 한 것으로 보는 편이 낫다고 본다. 왜냐하면, 바티칸 사본(Cod. B)은 그리스어 인명 변화에 더 가깝게 ‘Σελλης’로 음역했지만, 나머지 거의 대부분 필사본들은 ‘Σελλημ’으로 음역하여서 대본이었던 히브리어가 ‘멤’으로 끝났음을 내보이기 때문이다.³⁸⁾

둘째, 사무엘하 20:25의 용례로 여기서는 다윗의 관리 명단 가운데 서기관이 문제가 된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 현대 역본은 케레(שִׁוּ)에 따라 ‘스와’(영어: Sheva, 독일어: Schewa)로 음역한다. 하지만 케티브는 자음을 ‘바브’ 대신 ‘요드’를 써서 ‘שׁוּ’로 전한다. 케티브의 전통은 불가타에서 ‘Sia’로 받아들여지는데, 노바 불가타는 케티브와 케레를 혼합하여 ‘Siva’로 음역한다. 그런데 여기서 칠십인역은 ‘Σουσα’(수사)³⁹⁾로 또 다른 본문을 전한다. 비슷한 목록이 나오는 사무엘하 8:17에서는 히브리어 본문이 ‘שׁוּשָׁן’(스라야)이며, 칠십인역의 음역 전통에서는 바티칸 사본(Cod. B)이 ‘Ασα’이며, 나머지 대부분의 필사본들은 ‘Σασα’이다. 이런 음역은 다른 아난 역대상 18:16의 또 다른 목록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שׁוּשָׁן/Σουσα/사워사).⁴⁰⁾ 추정컨대, 우리가 다루는 본문의 케티브는 이런 관점에서 칠십인역이 반영하는 역대기 전통이 불완전하게 남은 흔적이 될 것이다.

셋째, 에스더 1:16에서 아하수에로 임금의 신하로 언급되는 이름이 『개역개정』에서는 케레의 전통(מַמּוּכָן)에 따라 ‘므무간’으로 음역되어 있다. 이 전통은 불가타(Mamuchan)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는 전통적인 음역이다. 반면에 케티브는 둘째와 셋째 자음의 자리가 뒤바뀐 전통(מַמּוּכָן)을 전하는데, 14절과 21절에 따르면 이 표기는 필사 오류로 보인다. 한편, 칠십인역의 음역 ‘ὁ Μουχαιος’(무카이오스)는 첫 음절의 모음은 케티브를 따르는 듯하지만, 필사본 이형 전통에 비추어 보면,⁴¹⁾ 케레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어 차원에서 변형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넷째, 역대상 1:46에서 『개역개정』이 케레(שִׁוּ)의 전통에 따라 ‘아윗’으

37) 이 낱말을 알렉산드리아 사본(Cod. A)은 ‘γαλλει’로, 바티칸 사본(Cod. B)은 ‘ρωμμα’로 음역한다. 바티칸 사본은 자음 ‘ב’를 ‘ג’로, ‘ו’를 ‘י’로 쓴 본문을 전제한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참조. M. Karrer and W. Kraus, eds., *Septuaginta Deutsch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I. Genesis bis Makkabäer*, 800.

38) 명확하게 근거를 대고 있지는 않지만, P. K. McCarter, *II Samuel*, 108도 필자와 같은 견해를 내보인다.

39) 대부분의 필사본과 달리 바티칸 사본은 ‘Ἰησοῦς’(예수스)로 음역했는데, 이는 필사 오류로 보인다.

40) 이런 견해로는 H. J. Stoebe, *Das zweite Buch Smuelis*, 446을 보라.

41) Αμουχαιος 610, Μαμουχαιος 93-S° 등. (여기서 숫자는 중세 그리스어 소문자 필사본에 대해 랄프스가 매긴 인식번호이며, ‘S’는 시나이 사본의 수정자의 손길 가운데 하나를 뜻한다.)

로 음역한 에돔 땅의 성읍 이름 용례이다. 케티브는 둘째와 셋째 자음이 뒤바뀐 ‘עֵיִת’을 전한다. 이 본문과 평행하는 창세기 36:35에서 케레와 같은 표기가 나오는 점을 바탕으로 보자면 케티브는 필사 오류다. 여기서 칠십인역은 ‘Τεθθαυμ’으로 음역하는데, 이는 창세기의 음역과 맞춘 것이다. 문제는 칠십인역의 대본인데, 사무엘하 4:3에서 ‘מְתִיָּה’을 이렇게 음역하는 점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⁴²⁾ 하지만 히브리어 후음 ‘ו’(아인)이 칠십인역에서 그리스어 ‘γ’(감마)로 음역되곤 한다는 점⁴³⁾을 고려하면, 이 부분의 히브리어는 ‘עֵתִים’이었을 수도 있다. 그럴 경우는 케티브와 좀 더 가깝다.

다섯째, 역대상 4:41에는 시므온 자손의 명단 끝에 그들이 히스기야 시대에 진멸한 족속의 명칭이 나온다. 『개역개정』은 이를 케레 전통(הַמְעֵיִתִים, 함므우님)에 따라 ‘모우님’으로 음역했다. 케티브는 여기서 자음 ‘바브’ 대신 ‘요드’를 쓴 음역 ‘הַמְעֵיִים’을 전한다. 같은 현상이 앞서 언급한 에스라 2:50에서 나오는데 거기서도 『개역개정』은 케레 전통을 따른다. 다만 차이점은 칠십인역이다. 에스라 2:50에서 칠십인역은 ‘Μαωνυμ’으로 케레 전통을 그대로 반영하여 음역하는 반면에,⁴⁴⁾ 역대상 4:41에서는 ‘καὶ τοὺς Μινάιους’로 음역한다. 이런 음역은 역대하 26: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칠십인역의 번역자들은 두 집단을 구분하려 했던 듯하다. 칠십인역이 케티브의 자음을 전제한다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⁴⁵⁾ 자음 ‘ו’(아인)의 음역이 없다는 점은 그 추측을 하게 한다. 한편, 노바 불가타(‘Meunitas’)와 달리 불가타는 케레의 전통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번역하여 ‘habitatores’(거주자들)로 옮겼고, 이 전통은 KJV(‘the habitations’)로 이어졌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는 고유명사가 더 어울린다.

여섯째, 역대상 8:25에서 베냐민 자손의 명단 가운데 케레 전통의 ‘פְּנוּאֵל’ (프누엘)을 『개역개정』이 그대로 따라서 ‘브누엘’로 음역했다. 기원후 5세기 이후 칠십인역의 대부분 필사본(AN rell)도 케레의 전통에 따라 ‘Φανουηλ’로 음역한다. 이것은 케레의 전통이 어떤 경로로든(가령, 헥사플라) 다시 그리스어 음역에 영향을 주었다고 여길 수 있다. 이들보다 앞선 기원후 4세기의 바티칸 사본(Cod. B)은 ‘Ιεμαίιν’으로 음역하는데, 여기서 ‘Λ’(람다)를 ‘N’(뉴)에 대한 필사 오류로 여긴다면, 바티칸 사본은 케티브의 전통을 반영한

42) 이런 견해로는, M. Karrer and W. Kraus, 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I. Genesis bis Makkabäer*, 225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칠십인역 번역이 없는 느 11:33을 근거로 든다.

43) 보기. ‘עַמְרָה’(아모라)를 ‘Τομορρα’(고모라)로 음역하는 등(창 19:24 등).

44) 비교. 느 7:52 Μείνωμ (<מְעֵיִים?).

45) 이런 견해는, G. N. Knoppers, *I Chronicles 1-9*, AB 12 (New York: Doubleday, 2004), 363을 보라.

다. 따라서 케티브 전통은 적어도 헬레니즘 시대까지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일곱째, 역대상 12:3은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의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레 전통(כַּרְיִי, 여지엘)에 따라 ‘여시엘’로 옮긴 경우다. 케티브는 둘째 ‘요드’를 ‘바브’로 써서 ‘כַּרְיִי’을 전한다. 여기서도 5세기 이후의 대부분 칠십인역 필사본들은 케레를 지지한다(Ιαζιηλ). 하지만 바티칸 사본은 여기서도 ‘Ιωηλ’로 또 다른 전통을 보여 준다. 이는 아마도 ‘כַּרְיִי’을 대본으로 전제할 터인데, 이는 자음 ‘י’(자인)이 빠져 있지만 케티브 전통과 가까워서, 여기서도 케티브가 단순한 필사 오류는 아닐 수 있음을 추정하게 해 준다.

여덟째, 역대하 9:29에서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그의 실록을 기록한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레 전통(יִטְדוֹ, 예도)에 따라 옮긴 선견자 ‘잇도’⁴⁶⁾가 문제가 된다. 케티브는 여기서 자음 ‘바브’를 ‘요드’로 쓴다(יִטְדוֹ). 그런데 칠십인역은 여기서 이 이름을 ‘Ιωηλ’(요엘)로 쓰는데, 이는 분명히 ‘כַּרְיִי’을 전제하는 음역이다. 칠십인역의 대본이 마소라 본문과 달랐을지, 아니면 역사 서술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잇도’의 다른 용례(יִטְדוֹ; 대하 12:15; 13:22)와 히브리어 자음이 다름을 나타내고자 했는지는 명확히 밝힐 수 없다.

3.2. 『개역개정』이 케티브 전통을 따른 경우

『개역개정』이 일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케레가 아니라 케티브를 선택한 경우는 17번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한다. 이런 경우는 『개역개정』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케티브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또 그것이 과연 본문비평 관점에서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짚어야 한다.

3.2.1. 칠십인역이 케티브를 따르는 경우

『개역개정』이 칠십인역과 더불어 케티브를 따르는 경우는 모두 7번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역대상 14:1의 ‘후람/히람’의 경우와 26:25의 ‘슬로못/슬로밋’의 용례는 앞서 다루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용례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개역개정』이 따른 케티브가 과연 본문비평 관점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에스라 2:46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46) 『개역개정』에서는 “선견자 잇도의 묵시 책 곧 잇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으로 잇도의 이름이 두 번 언급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한 번만 나온다.

『개역개정』에서 ‘사믈래’로 음역한 이름이 문제가 된다. 케레는 ‘שַׁלְמַי’(살마이)다. 그런데 케티브는 ‘ל’(라메드)와 ‘מ’(멤)의 위치가 뒤바뀐 ‘שַׁמְלַי’를 전한다. 그리고 보면 『개역개정』은 케티브를 따른 것이다. 이 전통은 칠십인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Σαμαλαι). 그런데 우리말 성경 전통은 『구역』(‘삼을내’)에서부터 줄곧 케티브를 따라왔지만, 불가타(Selmai)⁴⁷⁾에서부터 KJV(‘Shalmal’)나 LUT(‘Salmai’)는 케레를 따른다. 이는 아마도 평행 본문인 느헤미야 7:48에서 케레만 전한 데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Σαλαμυ/살매). 우리말 성경은 아마도 칠십인역 전통을 따르는 ERV와 ASV의 영향(‘Shamlai’)을 직접 받았을 것이다. 칠십인역이 따른 케티브가 분명히 케레와는 다른 본문 전통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느헤미야와 같아진 케레 본문보다 본문비평 관점에서도 더 어려운 읽기(lectio difficilior)로 높은 가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개역개정』을 케티브로 그대로 두어야 할지, 케레의 제안에 따라 느헤미야와 일치시킬지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둘째, 느헤미야 10:1-27[2-28]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 이후에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19[20]절에서 『개역개정』이 케티브의 전통(‘נֹבַי’)에 따라 ‘노배’로 음역한 이름이 문제다. 이 전통은 칠십인역(‘Νωβα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이름의 케레는 ‘נִבְי’(네바이)를 제안하는데, 이 이름은 여기 한 번만 쓰여서 두 전통을 본문비평 관점에서 판가름할 수 없다. 역본들 가운데서는 불가타와 KJV, LUT가 ‘Nebai’로 케레 전통을 따른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성경』이 이 전통을 따른다. 칠십인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개역개정』의 전통은 직접적으로는 ‘Nobai’로 음역한 ERV와 ASV의 영향을 받아 『구역』에서부터 줄곧 이 음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느헤미야 12:14에서는 제사장의 족장들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티브의 전통(‘מַלְלִיכִי’)에 따라 ‘말루기’로 음역한 이름이 나온다. 칠십인역(‘τῶ Μαλλουχ’)에서 받아들인 이 전통은 LUT(‘Malluch’)와 ERV, ASV(‘Malluchi’)에서 받아들여졌다. 반면에 케레는 ‘לְמַלְיָכִי’(리/물리쿠)를 제안하는데, 불가타 전통(‘Milico’)과 KJV(‘Melicu’)가 이를 따른다. 흥미롭게도 『성경』(‘말록’)은 여기서 불가타가 따른 케레가 아니라, 케티브를 따른다. 어쨌거나 이 이름도 여기 한 번만 쓰여서 어느 전통이 더 오래되었는지는 판가름하기 어렵다.

47) 최근 개정된 노바 불가타는 칠십인역이 따른 케티브 전통에 따라 ‘Semlai’로 음역하며, 『성경』이 ‘사믈라야’로 이를 따른다.

넷째, 역대상 27:29에서는 25-31절까지 언급되는 다윗 왕실의 재산 관리자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티브 전통(קֵטִיב)에 따라 ‘시드래’로 음역한 인물이 등장한다. 반면에 케레는 가운데 두 자음의 자리가 뒤바뀐 ‘שִׁרְטַי’(쉬르타이)를 제안한다. 칠십인역 전통은 케티브의 전통을 반영하여 ‘Σατραίς’로 음역한다. 그리고 불가타(Setrai)를 비롯한 모든 역본도 케티브를 따른다. 이 이름도 여기서만 쓰이는데, 앞선 경우들과 달리 아무 본문 증거도 케레를 따르지 않은 까닭을 밝히기는 어렵다.

다섯째, 역대하 13:19에서 남유다 아비야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사이에 벌어진 전쟁 끝에 아비야가 빼앗은 베냐민 지파 땅의 성읍 가운데 하나로 『개역개정』이 ‘에브론’으로 음역한 고유명사가 나온다. 이는 케티브(עֶפְרוֹן)를 따른 것으로, 칠십인역(Ἐφρων)과 불가타(Ephron), 그 밖에 대부분의 역본이 따르는 전통이다. 여기서 케레는 ‘עֶפְרַיִן’을 제안한다. 같은 장소를 일컫지는 않더라도, 케티브가 구약성경에서 익숙한 형태⁴⁸⁾인 반면에, 케레의 제안은 낯설다. 이는 아마도 후대 랍비 유대주의에서 비롯한 제안으로 보인다.⁴⁹⁾ 이런 케레의 전통을 현대 역본 가운데는 KJV(‘Ephrain’)가 따른다.

3.2.2. 칠십인역이 케레를 따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구약성경에서 4번 찾아볼 수 있다. 칠십인역이 케레를 선택했는데, 『개역개정』이 케티브를 따랐다면 그 까닭과 본문비평 관점의 가치를 따져보아야 한다.

첫째, 에스라 10:29에서 에스라의 개혁 마지막 부분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에서 ‘여레못’으로 음역한 인물은 케티브(יֵרֵמוֹת)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이에 비해 케레는 첫 자음을 ‘요드’가 아닌 ‘바브’로 보아 접속사로 처리했다(יְרֵמוֹת). 이는 칠십인역이 그대로 따르며(καὶ Πηρωθ), 불가타(‘et Ramoth’)와 KJV(‘and Ramoth’)로 이어진다. 반면에 『개역개정』은 『구역』에서부터 ERV, ASV(‘Jeremoth’)나 LUT(‘Jeremot’)와 같이 케티브를 따른다. 『성경』(여레못)도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케티브를 따른다. 결국, 문제는 이름을 나열하면서 접속사를 쓰

48) 창 23:8, 10(×2), 13, 14, 16(×2), 17; 25:9; 49:29, 30; 50:13; 수 15:9.

49) 더러 미쉬나 히브리어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요 11:54의 ‘Ἐφραΐμ’(에프라임)과 동일시하여 ‘עֶפְרַיִם’에서 왔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참조. W. Baumgartner and J. J. Stamm, ed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 Brill, 1983), 817; W. Geseniu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 (Kiel: Springer, 2013), 997.

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29절에서는 ‘그리고 바니의 자손 가운데는, 므술람, 말룩, 그리고 아다야, 야습, 그리고 스알, (여레못 K)[그리고 라못 Q]이 있다’로 접속사가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다. 하지만 10장 전체를 보면, 명단의 접속사와 관련한 법칙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더 어려운 읽기(lectio difficilior)인 케티브가 본문비평의 우위를 차지한다.

둘째, 사무엘하 15:28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요단강 근처까지 도피한 다윗의 발언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도피에 함께 따라온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 일행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이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한다. 여기서 『개역개정』은 케레(בְּעֲרֹבוֹת, 브아르봇; ‘스텝지역에서’)와 달리 케티브(בְּעֲבָרוֹת, 브아브롯)에 따라 ‘나루터에서’라고 번역한다. 하지만 칠십인역은 이 낱말을 고유명사로 보아 케레의 자음 구성에 따라 ‘ἐν Ἀραβωθ’ (엔 아라봇)으로 음역한다. 케레의 전통은 불가타(‘in campestribus’)에 이어 KJV(‘in the plain’)가 따랐고, 케티브는 ERV와 ASV를 거쳐(‘at the fords’) 『개역개정』 전통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케티브와 케레는 두 자음의 자리가 뒤바뀐 본문을 제각각 전한다. 케티브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여울의 얇은 곳’을 뜻하는 ‘עֲבָרָה’(아바라)의 복수형이며, 이 낱말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뒤에 다시 되돌아오는 장면인 사무엘하 19: 18[19]에서 한 번 더 쓰여서 연속성을 이루며,⁵⁰⁾ 반면에 케레의 전통은 17:16과 연속성을 이룬다. 흥미로운 점은 17:16에서는 마소라 본문에 아무런 이형 없이 ‘בְּעֲרֹבוֹת’인데도, 『개역개정』은 ERV, ASV와 마찬가지로(‘fords’)로 ‘나루터’로 옮긴다. 물론 이야기의 연속성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개역개정』의 이 번역은 재고해 보아야 하겠다.

셋째, 역대하 29:13, 14의 두 용례다.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에 참여한 레위인 명단 가운데 두 인물을 『개역개정』이 케레(יְהִיאֵל/יְעִיאֵל)와 달리 케티브(יְהוּאֵל/יְעוּאֵל)에 따라 제각각 ‘여우엘’와 ‘여후엘’로 음역한 이름이 문제다. 이 두 인물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그러나 히브리어만큼 후음이 발달하지 않은 칠십인역과 불가타는 제각각 케티브에 따라 ‘Iηλ’과 ‘Iahihel’로 같게 음역했다. 흥미롭게도 KJV(Jeiel/Jehiel)나 LUT(Jëiël/Jehiël)는 『개역개정』 전통과는 달리 케레를 따른다. 반면에 ERV와 ASV(‘Jeuel/Jehuel’)는 케티브를 따른다. 그러므로 『개역개정』의 전통은 이 영어 역본에서 직접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50) 이런 뜻의 용례로는 참조. 수 2:7; 삿 3:28.

3.2.3. 칠십인역의 전통이 케티브/케레와 다른 경우

이 범주는 칠십인역이 케티브와 케레와는 또 다른 번역어를 썼거나 번역어가 빠진 경우인데, 전자의 용례가 4번, 후자의 용례가 2번 등장한다.

(1) 칠십인역에 번역어가 빠진 경우

첫째, 사무엘상 27:8에서 다윗이 시글락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틈틈이 점령한 족속의 명단 가운데서 『개역개정』이 케티브의 전통(הגריזים)에 따라 ‘기르스’로 음역한 이름이 문제다. 이 전통은 현대 역본에서는 LUT(‘Girsiter’)와 ERV와 ASV(‘Girzites’)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바 불가타(‘Gerzi’)와 『성경』(‘게레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케레 전통은 ‘ר’ (레쉬)와 ‘י’ (자인)의 자리가 뒤바뀐 ‘יגריזים’ (학기즈리)를 제안한다. 이 전통은 불가타(‘Gedri’)와 KJV(‘Gezrites’)로 이어졌다. 칠십인역에서 기원후 4세기의 바티칸 사본(Cod. B) 전통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반면에 기원후 5세기의 필사본인 알렉산드리아 사본(Cod. A)과 그에 영향을 받은 필사본들은 ‘τὸν Γεζραίων’을 쓰는데, 이는 아마도 헥사플라를 통한 마소라 전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1세기의 소문자 필사본(Br.-M.: m; Ra.: 92)⁵¹⁾ 가운데 남아 있는 헥사플라의 아스테리스크스 전통(※)에 따르면,⁵²⁾ ‘τὸν Γεγρι’로 케레를 전제하는 전통이 있었음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명칭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칠십인역이 번역되던 시대에는 세 가지 이형, 곧 케티브와 케레, 본문이 빠진 칠십인역의 전통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음역을 할 때는 어떤 본문 증거를 선택하든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본문비평 관점의 판단을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느헤미야 12:9에서는 레위 사람들의 명단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티브의 전통(עני)에 따라 ‘운노’라고 음역한 이름이 나온다. 『개역개정』의 이 전통도 ERV와 ASV의 음역(‘Unno’)과 직접 잇닿아 있다. 반면에 케레는 ‘바브’ 대신 ‘요드’를 써서 ‘עני’ (운니)를 제안한다. 그리고 이 전통은 불가타

51) 필사본 정보는, A. Rahlfs,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14), 193을 보라.

52) 참조. Br.-M., *Vol. II, Part I*, 94의 제2비평장치. ‘아스테리스크스(Asteriskos)’는 오리게네스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에는 있지만, 당시 칠십인역 본문에는 없는 부분을 오리게네스가 채운 본문에 쓰는 기호다. 이 기호는 오리게네스의 고유한 ‘헥사플라 번역’ 본문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 구실을 한다. 이와 반대되는 기호는 ‘오벨로스(Obelos)’로서 오리게네스가 알고 있던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본문이 들어와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헥사플라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으로는,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30-137을 보라.

(‘Hanni’)를 거쳐서 LUT와 KJV로 이어졌다(‘Unni’). 한편, 칠십인역에서는 이 구절의 맨 마지막 부분만 있을 뿐(תַּמְשִׁימוֹתָ/εἰς τὰς ἡμερίας/‘직무를 따라’), 명단은 빠져 있어서 판단할 수 없다. 고유명사로서 케티브의 형태는 낫선 반면에, 케레와 같은 형태는 구약성경에서 몇 번 찾아볼 수 있다.⁵³⁾ 영어 역본에서 케티브를 선택한 이유는 아마도 더 어려운 읽기(lectio difficilior)의 원칙을 적용한 듯하다.

(2) 칠십인역이 다르게 번역한 경우

첫째, 여호수아 15:53에서는 땅 분배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 할당된 성읍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티브의 전통(יָנִים)에 따라 ‘야님’으로 음역한 고유명사가 문제가 된다. 반면에 케레의 전통은 둘째 자음 ‘요드’를 ‘바브’로 쓴 ‘יָנוּם’(야눔)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지명은 여기서밖에 쓰이지 않아서 우열을 판단하기 어렵다. 아무튼 불가타(‘Janum’)를 비롯한 대부분의 번역은 케레를 지지하는데, ERV와 ASV는 케티브를 따른다(‘Janim’). 아마도 『개역개정』의 전통은 여기서 직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칠십인역의 전통에서 기원후 4세기의 바티칸 사본(Cod. B)은 ‘Ιεμαῖν’을 전하며, 그 이후 나머지 대부분 필사본은 케레 전통의 ‘Ιανουμ’을 전한다. 바티칸 사본은 필사 오류든 아니든 아마도 ‘יָנִין’을 히브리어 대본으로 한 음역을 보여주며, 이는 케티브 전통과 비슷하다(‘נ’과 ‘מ’의 음위 전환). 따라서 케티브 전통은 적어도 바티칸 사본보다 이후일 수는 없다.

둘째, 여호수아 19:22에서는 잇사갈 자손의 경계 성읍 가운데 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개역개정』은 여기서 케티브의 전통(שַׁחְצִימָה)에 따라 ‘사하수마’로 음역한다. 한편, 케레의 전통은 여기서도 ‘바브’ 대신에 ‘요드’를 써서 ‘שַׁחְצִימָה’(샤하치마)를 제안한다. 이 고유명사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어서 판단하기 어려우나, 마찬가지로 『개역개정』 전통에 직접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ERV와 ASV(‘Shahazumah’)를 제외하고는, 불가타(‘Seesima’)에서부터 대부분의 역본이 케레를 따른다. 여기서 칠십인역은 ‘Σαλιμ κατὰ θάλασσαν’(바다 쪽의 살림)으로 옮긴다. 이것은 아마도 그 대본이 ‘שָׁלִים יָמָה’였을 것이다.⁵⁴⁾ 그리하여 칠십인역의 대본은 아마도 케티브/케레와는 또 다른 본문 전통을 전제할 것이다.

셋째, 열왕기하 23:36에서는 유다 임금 여호야김의 어머니 이름이 문제

53) 이런 형태로는, 대상 15:18, 20을 보라. ‘עַנְיָה’(아나야; 느 8:4; 10:22[23])가 이 이름의 더 긴 형태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케레가 맞으며, 케티브는 필사 오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참조.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357; K.-D. Schunk, *Nehemia*, 338.

54) 이와 비슷한 견해로는, T. C. Butler, *Joshua 13-24*, WBC 17B,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2014), 156을 견주어 보라.

인데, 『개역개정』은 케티브의 전통(הַבִּידָה)에 따라 ‘스비다’로 음역한다. 케레 전통은 ‘הַבִּידָה’(즈붓다)인데, 이는 LUT(‘Sebuda’)와 KJV(‘Zebudah’)가 받아들였다. 반면에 이 경우 케티브는 불가타(‘Zebida’)에서부터 ERV와 ASV(‘Zebidah’)를 거쳐 『개역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성경』도 불가타의 영향에서인지 케티브를 따른다. 이 이름도 구약성경에서 평행 본문이 없어 평가가 어렵다. 칠십인역은 여기서 바티칸 사본은 ‘Ιελλα’로,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비롯한 다수의 필사본은 ‘Ιελδαφ’로, 루키안 본문(19 108 93 127)⁵⁵⁾은 ‘Αμιταλ’로 음역한다. 칠십인역 전통을 제각각 히브리어로 재구성할 수 있으나, 그 본문비평 관점의 가치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호야김의 어머니 이름에 대한 다양한 전통이 공존하던 때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넷째, 역대상 1:51에서 에돔 땅 족속 가운데 『개역개정』이 케티브의 전통(הַעֲלִיא)에 따라 ‘알라’로 음역한 문제다. 반면에 케레는 ‘요드’ 대신에 ‘바브’를 써서 ‘הַעֲלִיא’(알바)를 제안한다. 케레는 불가타(‘Alva’)를 거쳐서 LUT(‘Alwa’)가 받아들였다. 케티브는 그밖의 현대 역본들이 대부분 따르며, 『개역개정』의 음역 전통도 그런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편, 칠십인역은 여기서 ‘Τωλα’로 음역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הַעֲלִיא’(올라)를 대본으로 삼았을 것이다.⁵⁶⁾ 그러니 칠십인역은 케레 전통과 음위 전환(metathesis)이 된 상태의 본문을 대본으로 전제하는 셈이다. 어쨌거나 이 세 전통은 적어도 칠십인역이 번역되던 때는 공존의 시기를 거쳤을 것이다.

4. 정리 및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케티브는 우리가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필사 오류와 초기 헬레니즘 시대 본문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케티브/케레가 있는 본문을 다룰 때는 케티브나 케레 어느 한 전통을 일관되게 따를 수 없다. 그 대신 면밀하게 본문비평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위에서

55) 중세 필사본들이지만, 기원전, 어쩌면 원-칠십인역(Ur-Septuaginta; the Old Greek)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도 여겨지는 이 필사본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Jong-Hoon Kim,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40-51을 보라.

56) 이런 견해는, G. N. Knoppers, *I Chronicles 1-9*, 271; Th. Willi, *Chronik: 1Chr 1-10*, BKAT XXI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14도 참조하라.

고유명사만을 다루었지만, 선행연구와의 연속선 상에서 보았을 때, 다른 모든 용례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개역개정』의 음역 전통은 대부분 자체적 본문비평 결과를 통해서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케티브와 케레 가운데 선택을 했다가보다는 ERV와 ASV의 음역을 대부분 수용했다는 인상을 짙게 받는다.⁵⁷⁾ 『개역개정』이 위의 두 역본에 영향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이는 『구역』 전통을 수정한 경우는 두 번뿐이며(대상 23:9 - 위의 3.1.2; 스 2:50 - 위의 3.1.3. (2)), 한 번만 『구역』도 두 역본과 다를 뿐이다(삼하 23:35 - 위의 3.1.2). ERV와 ASV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이는 현상은 특별히 『개역개정』이 케티브를 선택한 용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 말은 이 두 영어 역본의 본문비평 경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LUT는 고유명사 음역의 일관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고, KJV는 불가타의 전통에 따라 케레를 따르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ERV와 ASV는 전반적으로 케티브의 전통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개역개정』의 전통은 이런 원칙을 세운 흔적 없이 두 역본의 음역에 많이 기대고 있는데, 이는 성경 번역의 관점에서나 본문비평의 관점에서나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이 ‘히람/후람’의 보기에서 보듯, 영어 역본의 본문비평 관점의 판단을 재고해야 하는 용례도 있다. 한편, 『성경』은 불가타나 노바 불가타를 따르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다 그런 것도 아니어서 그 기준이 의심스럽다. 물론 우리말 역본들에서 눈길을 끄는 중요한 본문들은 그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케티브와 케레 관점에서 고유명사는 그간 『개역개정』은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경 번역 자체에서 얼마나 맹목적으로 전통에 의존해 왔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필자는 두 가지 제언을 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개역개정』은 분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케티브/케레 전통에서 고유명사의 음역에 연구 범위를 제한했는데도, 재고의 여지가 많은 본문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 말고도 역대기와 열왕기의 평행 본문을 바탕으로 조사한 필자의 앞선 연구에서도 『개역개정』 재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였다.⁵⁸⁾ 새로운 역본을 구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역본을 보완하여 역사에 남기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둘째 제언은 케티브와 케레의 전통의 번역은 분명히 재고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 서양의 일부 역본에서는 분명한 원칙을 내

57) 이는 앞서 각주 16)에서 언급한 우리말 성경 계보도의 정보와도 일치한다.

58) 김정훈,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개역개정판』 번역에 대한 소고 - 열왕기상 8:1-53// 역대하 5:2-6:42 평행본문을 보기로 -”, 『성경원문연구』 35 (2014), 48-69.

보이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케티브와 케레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원칙은 내세우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전통 자체가 본문의 다층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양 역본을 주로 따르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본문비평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적어도 케티브와 케레 전통에서 고유명사의 음역이 갈리는 용례들은 본문비평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하여 유지할 부분과 수정할 부분을 재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주제어>(Keywords)

케티브/케레 전통, 칠십인역, 고유명사 음역, 한글 성경 번역, 개역개정.

Ketib/Qere Tradition, Septuagint, Trnascrption of proper nouns, Korean Bible Translation, New Revised Korean Version.

(투고 일자: 2019년 1월 28일, 심사 일자: 2019년 2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4월 22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구약 개역』, 경성: 조선성서공회, 1938 (昭和 13年) = 영인본: 韓國聖經大全集 40, 41, 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 2002.
-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11 (明治 44年) = 영인본: 韓國聖經大全集 10, 11, 19, 20, 서울: 한국기독교문헌연구소, 2002.
- 『성경』, 서울: 천주교중앙협의회, 2005.
-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8, 2005.
-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1.
- 『성경전서 새번역』,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1.
- Brooke, A. and McLean, N. eds., *The Old Testament in Greek according to the Text of Codex Vaticanus, supplemented from other uncial manuscrip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06-1940 (Br.-M.).
- Elliger, K. and Rudolph, W., eds.,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5.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67-1977; 1997 = 『슈투트가르트 히브리어 구약성서: 한국어 서문판』,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8 (BHS).
- Gryson, R., ed., *Biblia Sacra Vulgata*, 4. Auf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94.
- Karrer, M. and Kraus, W., eds., *Septuaginta Deutsch: Erläuterungen und Kommentare. I. Genesis bis Makkabäer; II. Psalmen bis Daniel*,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1.
- Nova Vulgata: Bibliorum Sacrorum Editio (Vulgate Latin Bible) Sacros, Oecum, Concilii Vaticani il Ratione Habita Iussu Pauli PP. vi Recognita Auctoritate Ioannis Pauli PP. il Promulgata*, Vatacan City: Libreria Editica Vaticana, 1979.
-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43~ (LXX-Gö).
- 그리스도교와겨레문화연구회 편, 『한글성서와 겨레문화』, 서울: 기독교문사, 1985.
- 김정훈, 『구약주석 어떻게 할 것인가? 구약 본문의 이해와 주석을 위한 길잡이』,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김정훈,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 – 자음 중복과 중자 탈락, 유사 자음 차이의 보기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3 (2018), 184-208.
- 김정훈, “열왕기와 역대기 평행본문의 『개역개정판』 번역에 대한 소고 – 열왕기상 8:1-53//역대하 5:2-6:42 평행본문을 보기로 –”, 『성경원문연구』

35 (2014), 48-69.

김정훈, 『우리말 역본과 함께 하는 호세아 주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김정훈, 『칠십인역 입문: 본문의 역사와 연구의 실제』,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1, 서울: 바오로딸, 2009.

김중은, 『구약의 말씀과 현실』,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나채운, 『우리말 성경연구』, 서울: 기독교문사, 1990.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민영진, 『국역성서연구』, 서울: 성광문화사, 1984.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6.

이달, “한글성서 번역본의 특징 비교: 대한성서공회 발행 공인 번역본을 중심으로”, 「기독교문화연구」 13 (2008), 173-195.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한국기독교출판사, 1987.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조직·성장과 수난』 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이상규, “한글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을까? -한국성경번역사 개관”, 「고신신학」 13 (2011), 229-258.

Baumgartner, W. and Stamm, J. J., eds.,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Lexikon zum Alten Testament*, Leiden: Brill, 1983.

Butler, T. C., *Joshua 13-24*, WBC 17B, 2nd ed., Grand Rapids: Zondervan, 2014.

Cogan, M., *I Kings*, AYB 10,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8.

Gesenius, W., *Hebräisches und aramäisches Handwörterbuch über das Alte Testament*, 18. Aufl., Kiel: Springer, 2013.

Gordis, R., *The Biblical Text in the Making: A Study of the Kethib-Qere*, 2nd ed., New York: KTAV Publishing House, 1971.

Healey, J. P., “Nethinim”, *ABD* 4 (1992), 1085-1086.

Kim, Jong-Hoon, *Die Hebräischen und griechischen Textformen der Samuel- und Königebücher: Studien zur Textgeschichte ausgehend von 2Sam 15,1-19,9*, BZAW 394,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9.

Kim, Jong-Hoon, “Intentionale Varianten der Habakukzitate im Pesher Habakuk: Rezeptionsästhetisch untersucht”, *Biblica* 88 (2007), 23-37.

Kim, Jong-Hoon, “The Tradition of Ketib/Qere and its Relation to the Septuagint Text of 2.Samuel”, *ZAW* 123 (2011), 27-46.

Knoppers, G. N., *I Chronicles 1-9*, AB 12, New York: Doubleday, 2004.

McCarter, P. K., *II Samuel*, AB 9, New York: Doubleday, 1984.

- Noth, M., *Könige I,1-16*, BKAT IX/1, 3. Auf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3.
- Rahlfs, A., *Verzeichnis der griechischen Handschriften des Alten Testaments*, Berlin: Weidmannsche Buchhandlung, 1914.
- Ratzaby, Y., “Remarks concerning the Distinction between Waw and Yodh in the Habakkuk Scroll”, *JQR* 41 (1950), 155-157.
- Schunk, K.-D., *Nehemia*, BKAT XXIII/2,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 Stoebe, H. J., *Das zweite Buch Samuelis*, KAT VIII/2,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4.
- Ulrich, E.,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Vol. 1: Genesis-Kings*, Leiden; Boston: Brill, 2013.
- Ulrich, E.,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Vol. 2: Isaiah-Twelve Minor Prophets*, Leiden; Boston: Brill, 2013.
- Ulrich, E., ed., *The Biblical Qumran Scrolls, Vol. 3: Psalms-Chronicles*, Leiden; Boston: Brill, 2013.
- Willi, Th., *Chronik: 1Chr 1-10*, BKAT XXIV/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9.
- Williamson, H. G. M., *Ezra, Nehemiah*, WBC 16, Waco: Word Books, 1985.

<Abstract>

Die Transkriptionen der Eigennamen in der ‘New Korean Revised Version’ in Bezug auf der *Ketib/Qere*-Tradition: ausgehend von Metathesen und Differenzen zwischen Jod und Waw

Jong-Hoon Kim

(Busan Presbyterian University)

Bei dem vorliegenden Beitrag handelt es sich hauptsächlich um die Transkription der Eigennamen in der ‘New Korean Revised Version’ (1998/2005; NKR). Vor allem sind die Fälle, wo es im sog. masoretischen Text, bes. im Kodex Leningradensis Differenzen zwischen den *Ketib*- und *Qere*-Traditionen gibt. U.a. werden zwei Phänomenen näher betrachtet, nämlich die Metathesis und die Differenz zwischen Yod und Waw. Im masoretischen Text finden sich insgesamt 74 betreffende Fälle, bei der Metathesis 16 und bei der Differenz zwischen Yod und Waw 58.

Zur textkritischen Betrachtung wird zunächst die Septuaginta verglichen, weil der Qumrantext für unseren Zweck bloss einen Fall (Gen 36:5) bietet. Dann sollte die lateinische Übersetzung, also die Vulgata bzw. Nova Vulgata ebenfalls in Betracht gezogen werden. Als englische Vergleichstexte werden die ‘English Revised Version’(1881/1885) und die ‘American Standard Version’(1901) benutzt und als deutscher Text die Lutherbibel(1984). Zuletzt kommen die koreanischen Versionen: die ‘Korean Bible’(1911), ‘Korean Revised Version’(1938/1961) und ‘Katholische Version’(2005).

Die Ergebnisse: 2. Bei der Transkribierung des Eigennamens folgt die NKR meistens, wie bekannt, die ERV und ASV, die sich auf die *Ketib*-Tradition tendieren. Nur in den wenigen Stellen korrigiert die NKR diese Tradition. Dagegen nimmt die KJV häufig die *Qere*-Tradition auf. D.h. anscheinend hat die NKR sogar in einigen fraglichen Stellen keine eigene textkritische Entscheidung geführt. Das beansprucht die dringende Bearbeitung der NKR. Nicht nur für die neue koreanische Bibelübersetzung, sondern auch für die Bearbeitung der NKR muss man die Charakteristika der *Ketib*- und *Qere*-Tradition richtig berücksichtigen.